

호남지구 게릴라 토벌작전 분석

(1950. 6~1951. 4)

朴 東 燦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1. 머 리 말
2. 호남지역의 게릴라 형성과정
3. 제11사단의 창설과 게릴라 토벌작전
4. 결 론

1. 머 리 말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미국의 공산주의 섬멸원칙과 한국정부의 공산주의 타도 의지를 보다 확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공산주의 섬멸원칙은 1950년 2월 “국무성 안에는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미 공화당 상원의원 매카시의 발언에서 비롯된 매카시즘(McCarthyism)¹⁾ 열풍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며, 해방 후 5년간 좌우대립과 남북대결을 경험한 한국정부에게는 좌익세력의 척결이 곧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위기의식에서 그러한 원칙이 보다 강화되었다.

전쟁기간 동안 미국과 한국정부는 한반도내에서 공산주의를 완전히 타도하고 한반도 통일을 이룬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목표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정부는 남한에서만이라도 좌익세력의 완전한 제거를 통해 체제안정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실현에 잠재적인 걸림돌 중의 하나로 작용한 것이 남한내의 각 지역에 산재해 있던 게릴라들이었다. 당시 남한에는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으로 인해 퇴로가 차단된 북한군의 패잔병이 지방토착 좌익세력과 함께 게릴라부대를 형성해 결사항전을 벌였다. 특히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호남지역에서의 게릴라 활동은 정규군의 활동에 비견할만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게릴라 활동의 심각성은 전쟁발발 직후부터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문제였다. 8월 5일 미24사단장 처치 장군은 한국전쟁을 제2차 세계대전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전쟁이라면서 한국전쟁을 ‘게릴라전’이라고 규정하였으며, 8월 7일 윌로우비는 리지웨이에게 ‘게릴라들이 미군에게 유일한 가장 큰 골칫거리’라고 보고했다.²⁾ 이와 함께 주한미대사 무초는 국무부에 전황이 반전된 이후 제2전선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한국군의 증강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주한미군사고문단도 전쟁 발발 직후부터 게릴라들의 움직임에 주목하였다.³⁾

1) 1950년 2월 9일 “국무성 안에는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상원의원 매카시의 폭탄적인 발언에서 발단했다. 매카시의 주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공산화와 잇달아 발생한 한국전쟁 등 공산세력의 급격한 팽창에 위협을 느낀 미국 국민으로부터 광범한 지지를 받았다. 매카시즘이 먼저 공격목표로 삼은 것은 중국 정책에 영향력이 컸던 외교관, 국무부 직원, 정치학자, 국제법학자 등이었는데, 대통령 트루먼도 공산주의자에게 약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당시 국무장관 덜레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매카시즘의 공포에 떨었고, 그 때문에 미국의 외교정책이 필요 이상으로 경색된 반공노선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매카시는 육군에 도전한 것이 치명상이 되어서 1954년 상원의 査問洪議에 의하여 실각하였다(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II, 1989, p. 490).

2)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I*,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 689.

게릴라 토벌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인천상륙작전 이후 국군과 유엔군의 총반격이 이루어지면서부터였는데, 전쟁기간 동안 토벌작전은 크게 5차례 진행되었다. 1950년 10월 제11사단의 호남지구작전, 1951년 11월 백야전 전투사령부의 '쥐잡기작전(Operation Rat Killer)', 1952년 3월과 7월의 '페릿작전(Operation Ferret)', '몽구스작전(Operation Mongoose)', 최후의 게릴라 토벌작전인 '블러하운드 작전(Operation Bloodhound)' 등이 그것이다.⁴⁾ 이들 작전들은 '게릴라 토벌'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면서도 토벌대상 및 참가부대, 작전상황 등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는데, 시기별 작전의 특징은 전황과 전쟁전략의 변화 등을 반영한다. 이에 게릴라 토벌작전에 관한 문제는 전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게릴라 토벌작전에 관해서는 '쥐잡기 작전'을 제외하고는 사실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쟁 초기에 해당되는 제11사단의 게릴라 토벌작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⁵⁾

이에 본고에서는 호남지역에서의 게릴라 형성과정과 제11사단의 토벌작전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게릴라 형성과정에서는 북한군의 호남지역 점령 정책부터 살펴볼 것이며, 제11사단의 게릴라 토벌작전에서는 3단계로 시기 구분하여 단계별 작전상황 및 특징을 고찰할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기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부터 국군 제11사단의 토벌작전이 종결되는 1951년 4월까지이다. 비록 제11사단작전이 종결된 이후에도 제8사단

3) 「주한미대사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50. 8. 1, FRUS 1950, Vol. 7, p. 511. 전쟁초기의 게릴라 활동에 대해서는 KMAG, Periodic Intelligence Report, No. 1~No. 47 참조.

4) 이에 대해서는 졸고, 「전쟁기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활동」,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 488~490 참조.

5) 지금까지 이 시기에 관한 연구로는 1954년에 육군본부 전사감실에서 발간한 『공비토벌사』와 1988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대비정규전사(1945~1960)』가 대표적이지만, 이 두 공간사에는 게릴라의 형성과정이나 작전단계별 특징에 관해서는 대단히 소략되어 있다. 또한 '양민학살'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연구들이 있지만,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지역과 일부 작전부대에 국한되어 있어 종합적인 분석이 미흡하다.

이 제11사단을 대신해 약 1개월간 호남지구 게릴라 토벌작전을 지속하지만, 주요 게릴라 토벌작전은 이미 제11사단에 의해 종결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2. 호남지역의 게릴라 형성과정

(1) 북한군의 호남지역 강점과 점령정책

1950년 7월 초 한강을 도하한 북한군은 온양-예산-장항-군산을 거쳐 광주와 목포를 점령한다는 호남지역 남하계획에 따라 7월 11일 공주-대전 축선으로 남진하던 북한군 제6사단을 호남지역으로 우회시키는 명령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북한군 제6사단은 13일 예산을 출발하여 공주, 금강을 건너 호남지방에 진입, 10여 일만에 호남지방을 장악했다.⁶⁾

북한군의 호남지역 남하계획이 착수되자 육군본부는 시급히 국군 제5사단을 재편성하여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호남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기간 병력의 대부분이 전쟁 발발과 동시에 전방으로 차출된 상황에서 잔여병력과 신병, 그리고 학도병으로 구성된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는 북한 정규군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7월 22일 제26연대가 장성에서 전투 한번 제대로 못해 보고 퇴각한 이후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는 23일 광주를 퇴각해 26일 여수를 거쳐 부산으로 후퇴하였다.⁷⁾

북한군이 호남지역을 점령한 후 지역내에서는 조선노동당의 지역당 조직과 인민위원회의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당조직의 재

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상, 1995, pp. 275~276.

7)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2, 실천문화사, 1991, pp. 213~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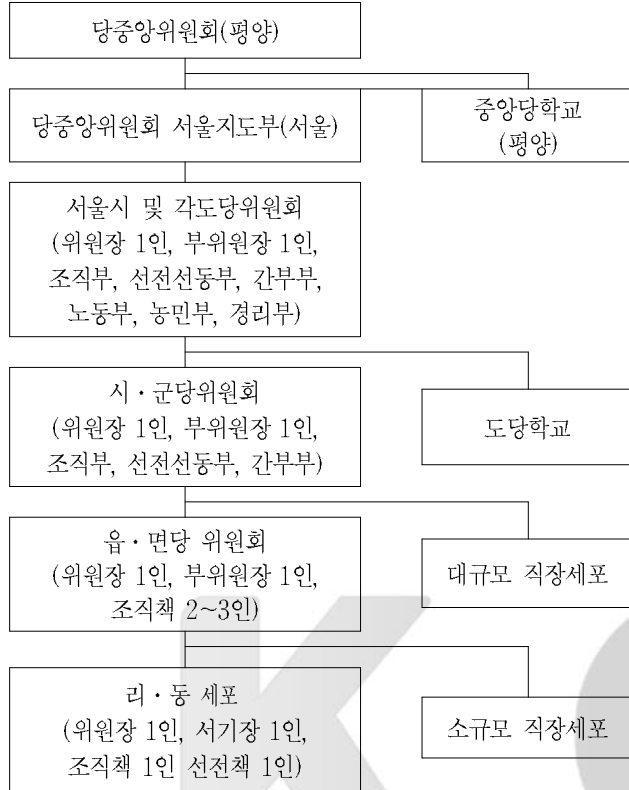
건은 북한정권이 점령지역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한 사업이었다.⁸⁾ 이를 위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북한에서 교육받은 당 및 사회단체의 핵심요원들을 남한에 파견하였는데, 이들 요원들의 대부분은 이전에 남로당원으로 활동하던 인물들이었다.⁹⁾

전라북도의 경우 도당위원장에 方俊杓, 부위원장에 曹秉夏가 임명되었으며, 도당위원장 아래에 부위원장 1명, 그리고 조직부, 선전선동부, 간부부, 노동부, 경리부, 농민부 등 6개의 부서가 있었다. 그리고 군당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과 조직부, 선전선동부, 간부부 등 3개 부서가 있었으며, 면당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아래에 부서는 없고 조직선전원, 조직지도원, 선전지도원 등이 있었다.¹⁰⁾ 전라남도의 경우 도당위원장에 朴永發,¹¹⁾ 부위원장에 金善佑¹²⁾가 각각 임명되었으며, 도당위원장 아래에 조직부, 선전선동부, 노동부, 간부부, 농민부, 경리부 등이 있었다.¹³⁾

-
- 8) 당시 점령지역에서의 당조직 재건방식은 북로당을 중심으로 남한내의 지역당을 복구 흡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행정구역에 따라 중앙(서울), 도, 시, 군, 면 순서로 당위원회 조직을 나갔다. 그리고 당원 확충 방식은 신규 당원의 확보보다는 이전에 당 활동을 했던 남로당원들을 재심사해 등록시켰다(김남식, 『남로당연구』1, 돌베개, 1984, p. 447).
- 9) 조선노동당출판사, 『조선노동당 역사교재』, 1964, p. 257. 8월 16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제53차 회의에서는 점령지역에서의 노동단체 복구와 노동당 조직의 강화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당조직이 면단위까지 급속히 확대되었다(같은책, pp. 299~301).
- 10) 역사문제연구소, 『남로당 지방당 조직의 활동상을 밝힌다』, 『역사비평』 겨울호, 1988, p. 337.
- 11) 박영발은 일제 때 토건노동자로 있다가 해방 후 전평 산하 토건노조위원장, 전평 서울평의회 조직부장, 서울시당 노동부부장, 전평 조직부부장, 남로당 중앙당 노동부 지도원을 거쳐 월북했다. 그는 박헌영의 추천을 받아 모스크바 고급당학교에 입교해 3년간의 과정을 마친 후 한국전쟁 때 전남도당책으로 파견되었다. 그는 뛰어난 공산주의 이론의 소유자로 공산주의이론상으로는 이현상도 그를 당할 수 없었다고 한다(김남식, 앞의 책, p. 466).
- 12) 김선우는 전남 보성 응치 출신으로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거쳐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여 공산주의에 심취하였다. 이후 그는 노동계에 투신하여 선반노동자를 거쳐 병기제조창에 근무중 병기장 폭발사건에 가담하여 투옥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해방 이후 인천 민청위원장을 거쳐 경기도당 선전부장으로 있다가 전남도당으로 내려왔다. 1950년 후반부터 유격대 사령관을 겸임했으며 1954년 백운산 기슭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다(『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 실천문화사, 1991, p. 283).

이러한 당 간부의 인선은 대부분 중앙당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군 당까지도 중앙당이 당책을 임명하였다. <그림 1>은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내의 당조직 체계도이다.

<그림 1> 북한군 점령지역 내에서의 당조직 체계¹⁴⁾



13) 전남도당 조직부장에는 김홍배, 선전선동부장에는 신동기, 노동부장에는 오금기, 간부부장에는 정규석, 농민부장에는 이방휴 등이었다(위의 책, p. 283).
 14) 권영진,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남한점령지역 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89, p. 45.

한편, 당 간부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각 도에는 도당학교가 설치되었다. 각 도당학교에서는 당건설, 국제·국내정세, ‘정의의 전쟁’, ‘해방전쟁’에 대한 강의 등 사상과 당 외곽단체의 조직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호남지역의 경우 전주와 광주에 도당학교가 설치되었으며, 각 도당학교에서는 약 100명 가량을 수용해 1주일간 단기 강습을 실시한 후 당원을 배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⁵⁾

이러한 당 재건과 함께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임시인민위원회’가 예외없이 조직되었다. 서울시 임시인민위원회를 비롯하여 각도에는 도, 군, 면, 리 임시인민위원회가 체계화되어 점령 초기에 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임시인민위원회는 문자 그대로 임시적인 조직에 불과했기 때문에 북한정권은 ‘대중적 지지’라는 측면에서 선거를 통한 합법적인 인민위원회의 구성을 계획하고 1950년 7월 1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명의로 ‘남한 점령지역에서의 군·면·리(동)의 인민위원회 선거 실시에 관한 정령’을 발표했다. 정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도를 제외한 군·면·리(동)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한다. 둘째, 선거일은 해당 도 임시인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셋째,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지도부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¹⁶⁾

이에 따라 김원봉 외 8명으로 구성된 중앙선거지도부가 구성되고, 각도에는 임시인민위원회 안에 도 선거위원회가 설치되었다.¹⁷⁾ 그 후 북한군이 점령한 각 군, 면, 리에서는 7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리 총회와 군·면 대표자대회 등을 통해 군·면·리 인민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때 설치된

15) 전북도당 산하 4도(전북, 전남, 경남, 충남) 연락책을 맡았던 김문현은 전라북도 남원군의 경우 7월 20일 각 읍면에서 1명씩 차출되어 18명이 전주에 있던 도당학교에 입교해 일주일 간 강습을 받았다고 증언한다(역사문제연구소, 앞의 글, pp. 336~337).

16) 『남반부 해방지역의 군·면·리(동) 인민위원회 선거 실시에 관한 정령』, 『민주노선』, 1950. 7. 15.

17) 중앙선거지도부 성원은 김원봉, 장순명, 김응기, 이종갑, 현훈, 정철성, 남성민, 이환기, 방학세 등 이었다. 여기서 책임자는 김원봉이었으나 실권은 장순명(전 북로당 부위원장)과 방학세(내무성 정치보위국장)가 장악하고 있었다(김남식, 앞의 책, p. 448).

각급 인민위원회의 수와 위원수를 살펴보면, 군 인민위원회는 108개 군에 3,878명, 면 인민위원회는 1,186개 면에 22,314명, 리 인민위원회는 13,654개 리에 77,716명이었다.¹⁸⁾

당시 인민위원회 선거에서는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들이 상당수 선출되었는데, 이들은 주로 인민위원회의 실권을 행사하는 서기장직을 맡고 지역 출신자들이 위원장직을 맡았다.¹⁹⁾

전라남도의 경우 전쟁발발 직후 국군에 의해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었던 국기열이 석방되어 도 인민위원장에 부임하였다. 그러나 국기열은 해방 직후부터 종파주의 활동과 분파주의 활동을 했다는 것과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임명된 지 4일만에 해임되고 金百東이 후임 위원장이 되었다.²⁰⁾ 보성 출신이었던 김백동은 해방 후 남로당 전남도당의 핵심인물로 정부수립 후 검거를 피해 월북했다가 북한군이 광주를 점령하자 정식으로 전라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임했다.²¹⁾ 이러한 도 인민위원장의 교체는 토착 좌익세력보다는 북로당계로 북에서 파견된 자나 남로당계로서 월북한 자를 중요 간부로 인선하고자 했던 간부 충원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도 당과 도 인민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곧이어 각 시·군에도 당과 인민위원회가 복구되었다. 광주의 경우 국기열과 함께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었던 강석봉이 인민위원장에 부임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로당 직계인 金永才가 강석봉의 과거 전력을 문제삼아 그를 밀어내고 인민위원장이 되었

18)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5,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81, pp. 302~303; 김남식, 위의 책, p. 448.

19) 서기장이란 실권을 행사하는 직책인데 인민위원회가 공산화작업을 직접 하자면 실무에 경험이 있는 자가 이 자리를 맡아보아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출신자가 맡았고 서기장 또는 부위원장은 북로당계 출신이 맡았다(김남식, 위의 책, pp. 448~449).

20)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전라남도지』 제9권, 1993, p. 142.

21)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앞의 책, p. 215.

다.²²⁾ 목포에서는 7월 24일 북한군이 무혈입성한 이후 1개 소대병력이 남아 당조직과 인민위원회 구성을 지원하였다. 당책으로는 나주 금천 출신인 김영우가 선임되어 주민의 사상교육, 토지개혁의 지도, 인민위원회의 선거 지도 등의 역할을 담당했으며, 인민위원장은 목포의 거물로 알려졌던 조모가 선출되었다.²³⁾ 목포에서 인민위원회가 결성된 것과 동시에 임자, 자은 등 전남 서남해안 도서지역에도 인민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들 도서지역의 인민위원회는 내륙의 인민위원회와는 또 다른 구성상에서의 특징을 보였다. 그것은 도서지역 인민위원회가 전적으로 토착 좌익세력에 의해 형성 주도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도서지역에는 북한군 정규군이 단 한 명도 정식 파견된 적이 없으며, 지역 출신의 빨치산 또한 인민위원회 구성에 직접 관여한 흔적이 없었다.²⁴⁾

한편 여수에는 7월 27일 북한군이 무혈입성한 후 약 400명의 북한군이 잔류하며 점령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여수시 당위원장에는 유목윤이, 인민위원장은 김수평이 각각 임명되었다.²⁵⁾ 23일 북한군 치하로 접어든 영광에서는 군당 위원장에 丁泰聲, 인민위원장에 金芳浩가 각각 임명되었으며,²⁶⁾ 24일 북한군 치하로 접어든 영암지역에서는 당일 군당과 군 인민위원회 및 각 면 당과 면 인민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영암군 당책임자는 황점택이, 인민위원장은 박월출이 선임되었으나 3일만에 최규동으로

22) 光州廣域市史編纂委員會, 『光州市史』第三卷, 광주광역시, 1995, pp. 178~179.

23) 김영우는 빈농 출신으로 정규 교육은 받지 않았고 서당에서 한학만을 배운 다음 해방 후 남로당에 입당해 전쟁 발발 전까지 빨치산 활동을 했다(『전남일보』, 위의 책, p. 222).

24) 『전남일보』, 위의 책, p. 229.

25) 유목윤은 여수보통학교를 졸업했고 남로당 지하당 책임자로 일했으며 여순 10·19사건 후 백운산에 입산했다가 전쟁과 함께 하산한 인물이었다. 김수평은 일제 때 서울 중앙고보를 졸업하고 메이지대 전문부를 거쳐 와세다대 정경학부에서 수학한 여수의 명문가 출신이었다. 서자였던 그는 일제 때부터 지하에서 좌파 학생운동에 깊이 관여했으며, 여수 일원의 좌파 지식인들 사이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인물이다(『전남일보』, 위의 책, p. 239).

26) 정태성은 당시 나이 37세로 일제 때부터 공산주의 활동을 해오다가 해방후 좌익활동을 하다가 산으로 들어간 빨치산 출신이었다(『전남일보』, 위의 책, pp. 246~247).

바뀌었다.²⁷⁾ 해남의 경우에는 인민위원회 위원장에 윤웅이, 부위원장에 김창수와 문종식이 각각 임명되었다.²⁸⁾ 그리고 장흥의 경우에는 김감년²⁹⁾이 군 당위원장과 인민위원장을 겸임하다가 곧 당위원장은 위재만에게 인계되었으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초기에는 광주에서 온 이혁이 맡았으나 곧 송순종과 이복에서 온 한모로 교체되었다.³⁰⁾ 화순의 경우, 군당 위원장은 朴甲出이, 군당 부위원장은 북에서 파견된 이태학이, 인민위원장은 趙正顯이 각각 맡았다.³¹⁾ 광양의 경우, 군당 위원장은 이승동이, 인민위원장은 김을수, 부위원장은 정군화와 북한에서 파견된 사람이 각각 선임되었다.³²⁾

인민위원회의 복구와 함께 민청,³³⁾ 농민동맹,³⁴⁾ 부녀동맹³⁵⁾ 등 옛 남로

27) 황점택은 당시 26세로 해방 후 좌익운동에 투신해 민청 영암위원장을 거쳐 남로당 불법 화이후 유치 일대에서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전쟁을 맞았다. 그는 국군에 의해 영암이 수복된 이후 금정면 국사봉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격대의 사령관을 맡아 1952년까지 활동하였다. 최규동은 일제 때인 1932년에 영암 소작쟁의에 가담하였으며, 전쟁발발 이전에 영암군 내에서 좌익세가 가장 강했던 영보리의 이장 출신이다(『전남일보』, 위의 책, pp. 259~260).

28) 윤웅은 해남읍 자작농 출신으로 한국전쟁 전까지 주민들에게 그리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다. 문종식은 북한군 후퇴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신성분과 기존 활동이 문제되어 좌익계에 피살당했다.(『전남일보』, 위의 책, p. 277).

29) 김감년은 남로당이 비합법 전술로 투쟁노선을 전환한 이후 입산해 영광지구에서 빨치산 활동을 했었다.

30) 『전남일보』, 앞의 책, p. 284.

31) 박갑출은 화순탄광 노조간부 출신으로 1950년 11월 도당 조직부장이 되었다가 후에 도당 부위원장이 되어 백야산으로 들어가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그는 1955년 3월 3일 최후의 전남도당 책임자로서 화순군 동면에서 처형되었다. 조정현은 일제 때 한천면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다 해방 후 좌익운동에 가담하였다. 그는 여순10·19사건 후 빨치산으로 지리산에 입산했다가 한국전쟁 직전 화순군 동면 민가에 내려와 있던 중 전쟁을 맞았다(『전남일보』, 위의 책, pp. 291~292).

32) 이승동은 보통학교를 졸업한 빈농 출신으로 광양광산 노동자로 일하다 전쟁 발발 이전에 광양군 당 조직부장을 역임했다. 김을수는 농민출신으로 해방 후부터 좌익활동을 했던 인물이다(『전남일보』, 위의 책, p. 297).

33) 북한은 민청을 구질서 타파와 대중의 선봉대로 인식하였다. 즉, 여러 대중단체들 중에서 혁명을 위한 폭력적 힘의 원천이며, 투쟁의 선봉대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당위원회가 복구된 곳이면 예외없이 민청을 조직하였다.

당 산하조직도 복원되었으며, 북한군 지원을 위한 조국보위후원회 등과 같은 새로운 단체들도 속속 결성되었다.

이렇듯 당조직과 인민위원회의 구성이 7월 말경 완료되자 8월부터는 우익인사에 대한 철저한 검거령이 내려졌다. 그 대상에는 낙오된 군경이나 우익정당 및 단체의 임원, 재산가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검거령은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이미 김일성과 박헌영에 의해 공식 표명된 사항이었다. 김일성은 전쟁을 일으킨 다음날인 6월 26일 방송연설을 통해 “도처에서 반역자를 처단하고 인민의 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복구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박헌영도 “반역자들을 체포 처단하여 인민들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지시하였다.³⁶⁾

이러한 우익인사에 대한 검거와 탄압은 북한 내무성 산하의 경찰조직인 정치보위부와 북한군 점령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자위대가 담당하였다. 당시 북한 내무성 정치보위부에서는 북한에서 훈련된 요원들을 시, 도, 군 단위까지 파견하여 도에는 내무성 도지부, 시·군에는 시·군 내무서를 설치하였으며, 시·군 내무서 책임하에 각 면 단위 분소를 설치하였다. 면·리 단위에서는 민청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소위 ‘자위대’ 혹은 ‘치안대’라는 조직이 만들어졌다.³⁷⁾

내무서와 자위대에 의한 우익인사 검거는 7월 중순 각 시·군 내무서를

34) 농민동맹에 가입한 농민은 전라북도가 18세 이상 농민 762,546명 가운데 591,411명, 전라남도가 18세 이상 농민 508,482명 가운데 434,149명이었다(『농민동맹중앙위원회회의록 1950년도』, 권영진, 앞의 논문, p. 52 재인용).

35) 부녀동맹은 여성들에 대한 정치교양사업을 통해 전쟁과 혁명을 위한 당의 정책에 여성들을 조직 동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부녀동맹에 부여된 중요한 사업의 하나는 북한군의 식사와 세탁을 담당하고 전선 원호품을 수집하는 것이었다(『해방일보』, 1950. 9. 3).

36) 『6월 26일 행한 김일성의 방송연설』, 『조선중앙년감 1951~1952』, p. 15; 민족보위성 문화선전국, 『남반부의 노동당 전체당원들과 전체인민들에게 호소한 박헌영선생의 방송연설』, 『선전원수책 16호』, 1950. 7. 1.

37) 대검찰청, 『좌익사건실록』 제10권, pp. 331~497.

통해 하달된 ‘검거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면·리 단위로 내려갈수록 분소장 및 자위대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검거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었다.³⁸⁾ 이는 전쟁발발 전후로 정부의 대대적인 좌익 척결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에 대한 보복의 차원에서 우익 인사의 검거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었다. 이들에 의해 검거된 우익 인사들은 북한군 점령 초기와 말기에 인민재판이나 즉결처분 등의 형태로 집단학살을 당하였다. 특히, 전세가 불리해져 북한군이 퇴각하는 점령 말기에 학살은 더욱 더 노골화되었다.

일례로 전북 옥구군에서는 9월 27일~29일 사이에 ‘반동분자’ 및 그 가족 574명이 학살되었으며, 전남 광주에서는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약 2,000명 중 500여 명이 북한군 후퇴시에 살해당했다. 또한 목포에서도 산전동에 있던 구형무소와 목포역에 있는 미곡창고 등에 1,000여 명이 수감되었다가 300명 이상이 살해당했으며, 무안에서는 우익 인사로 분류된 80여 명이 불에 타 죽기도 했다. 이밖에도 호남지역에서는 북한군 후퇴시기를 전후해 우익인사를 대상으로 한 크고 작은 학살이 끊임없이 발생하였다.³⁹⁾ 이러한 우익인사에 대한 학살은 국군 점령 이후 우익에 의한 좌익 테러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테러의 악순환은 전쟁 기간동안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양상을 보였다.

여하튼 북한군이 점령한 3개월 기간 동안 호남지역에서는 북한정권이 계

38) 이 지시문에는 검거 대상자를 친미분자, 민족반역자, 친일분자로 나누고, 친미분자의 범위를 국회의원, 남한정부각료, 도지사, 경찰서장, 악질경찰, 재판소 판사·검사, 우익단체 책임자 등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민족반역자로는 테러단체장, 악질테러단원, 미국을 경제적으로 적극 원조한 자로, 친일분자로는 일제시 총독부 책임자, 도책임자, 도평의원, 군급책임자, 검사, 판사, 일본제국주의를 경제적으로 적극 원조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였다(『군·면·리 위원 선거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당 조직을 강화한 데 대한 지시』, 권영진, 앞의 논문, p. 82 재인용).

39) 대검찰청 공안부, 『좌익사건실록』 제11권, 1975, pp. 50~64;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전라남도지』 제9권, 1993, pp. 143~144;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앞의 책, pp. 212~296를 참조.

확한 점령정책에 따라 당조직과 인민위원회가 복구되고 각종 단체들이 신속하게 설치되었으며, 피난하지 못한 주민들은 이들 단체들에 반강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북한군 점령지역에서의 동원체제 구축은 토착 좌익세력과 북한군 패잔병의 게릴라 전환시 인적·물적인 토대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북한군의 후퇴와 게릴라부대로의 전환

1950년 8월 15일을 이른바 ‘제2해방의 날’로 정하고 낙동강 경계선까지 파죽지세로 남진한 북한군은 인천상륙작전 이후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9월 23일을 기해 전 전선에서의 전면적인 후퇴를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북한정권은 9월 중순경 각 지방당에 산악지대로의 이동과 게릴라전 준비를 골자로 하는 다음과 같은 지시 사항을 하달했다.

“① 전세가 불리하여 후퇴한다, ② 당을 비합법적인 지하당으로 개편하라, ③ 유엔군 상륙 때 지주가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라, ④ 군사시설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은 모두 파괴하라, ⑤ 산간지대 부락을 접수하여 식량을 비축하라, ⑥ 입산 경험자 및 활동이 가능한 자는 입산시키고, 기타 간부들은 일시 남강원도까지 후퇴케 하라.”

이 지시에 따라 각 도당위원회에서는 각 군당에 같은 내용의 조치를 취하게 하는 한편 9월 28일을 전후해 모든 조직들을 자기 도내의 산악지대로 이동시키고 입산자를 규합해 여러 개의 게릴라부대를 조직했다. 이러한 게릴라 부대에는 지방민청원과 자위대원이 주가 되었지만, 북한에서 파견된 내무서원, 정치보위부원, 정치공작대원과 후퇴하지 못한 북한 정규군도 포함되었다.⁴⁰⁾

이러한 북한군의 제2전선 형성은 유엔군의 후방지역을 교란하여 증원부

40) 김남식, 앞의 책, pp. 454~455.

대의 지원을 차단하고 차후 반격으로 이전할 경우 자신들의 전선타격부대와 배합전술을 펼친다는 전략방침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방침은 모택동의 구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당시 모택동은 약 4~5만명의 북한군이 남쪽에 남아 게릴라부대로서 유엔군 후방을 교란시킨다면 북한지역에서의 작전과 차후 반격작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⁴¹⁾

이와 같은 모택동의 구상에 호응하여 10월 6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는 내무기관과 군사동원기관의 구성원 및 특별자위대원들을 핵심으로 게릴라부대를 조직하고 후퇴하지 못한 북한 정규군과 함께 게릴라전을 전개할 것을 결정하고, 각 도당 책임간부들을 선임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도당위원장에는 방준표가, 부위원장에는 조병하가 임명되고, 전남도당 위원장에는 박영발이, 부위원장에는 김선우·김향선이 각각 임명되었다.⁴²⁾

10월 11일 김일성은 방송연설을 통해 전쟁상황이 불리하여 전략적인 후퇴를 하게된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비합법 지하당으로의 당조직 전환 개편과 도당 지도부의 지도하에 유격대를 편성하고 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⁴³⁾

이 지시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도당위원장 방준표의 지휘하에 회문산으로 도내 당조직들을 집결시켰으며, 전라남도에서는 도당위원장 박영발의 지휘하에 북부는 백운산, 남부는 월출산으로 입산 집결시키고 백아산에 도당 지휘부를 두고 활동하였다.⁴⁴⁾ 아래의 <표 1>은 당시 호남지구에서 활동하던 게릴라 부대의 현황이다.

당시 호남지역에서 활동하던 게릴라의 규모는 적어도 20,000명 이상이었다. 1950년 10월 25일 무초 주한미대사는 “맥아더가 궁극적으로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한 현재 시점에서 적어도 20,000명 이상의 게릴라들이 호남지역 9개의 산악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마을마다 낮에는 태극기가, 밤에

41) 이와 관련해서는 양영조, 『한국전쟁기 북한 게릴라의 활동과 성격』, 『한국전쟁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일 국제학술세미나, 2002. 10. 참조.

42) 김남식, 『실록 남로당』, 한국승공연구원, 1979, pp. 529~530.

4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전사』 26, pp. 58~61.

44) 김남식, 『실록 남로당』, 한국승공연구원, 1979, pp. 543~544.

<표 1> 호남지구 게릴라 부대 현황⁴⁵⁾

활동지구	게릴라 부대명
전북지구	전북병단, 완주군당, 돌격유격대, 김제유격대, 전북유격대, 담양유격대, 순창유격대, 칠보유격대, 지구기동대 105사령부, 독수리대대, 영광호대, 위라호대
지리산지구	107부대, 605부대, 지리산유격대, 백운산유격대
전남지구	전남총사령부 기동대, 광주유격대, 화순유격대, 보성유격대, 나주동부유격대, 전남당기동부대, 영광유격대, 장흥유격대, 남해여단

는 인공기가 나부긴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338개의 경찰 지서 중 현재 80개만이 수복되었으며, 나머지 258개의 지서는 좌익들의 수중에 놓여 있다”고 적고 있다.⁴⁶⁾ 이를 통해 볼 때, 호남지역에서는 10월 말까지도 여전히 좌익세력의 영향력이 대한민국 군·경의 영향력보다 월등히 컸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지리산을 중심으로 백운산·회문산·불갑산·백아산·화학산 일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던 호남지역 내의 게릴라들은 호남지구 각처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보급로차단 및 통신망 절단, 식량 약탈·지서습격·차량기습·살인·방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그들은 전남 도처에서 해방지구를 조성하여 보급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지리산 부근의 운봉·곡성·하동 등지에 출몰하여 양민들을 위협하는 한편, 남원-구례-순천에 이르는 전라선 철도를 파괴하고 군용열차를 습격하여 무기와 보급품을 약탈하는 등 아군 후방지역을 극도로 교란하였다. 이들의 행동이 전후방전역에 까지 파급되면서 극심한 민심 동요와 국민사기 저하의 가장

45)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공비연혁』, 1971, p. 271.

46) Muccio to State, 1950. 10. 25, 795.00 file, box 4269, Bruce Cumings, 앞의 책, p. 689 재인용.

큰 요인이 되었다.⁴⁷⁾ 이에 미8군사령부와 국방부는 게릴라 토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사단을 편성해 대대적인 토벌작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3. 제11사단의 창설과 게릴라 토벌작전

앞서 살펴보았듯이 1950년 9월 국군과 유엔군의 총반격작전으로 인하여 퇴로가 차단 당한 북한군의 패잔병들은 후방 산악지역에서 활동하던 지역 게릴라들과 합세해 점차 전투력을 재정비하고 국군과 유엔군의 병참선을 차단하거나 전투근무지원시설을 위협하였다.

이 무렵 미 제8군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북진작전에 차질이 생기게 되자, 군예비로서 후방지역에서 활동하던 미 제9군단을 청천강 전선에 투입하게 되었다. 이에 육군은 작전명령 제216호에 의거해 1950년 10월 15일 후방지역작전을 전담할 제3군단을 창설하고 6개의 유격대대로 구성된 유격사령부와 제2사단, 제5사단, 그리고 신편 중에 있던 제9사단과 제11사단을 배속하였다.⁴⁸⁾ 이중 호남지구 게릴라 토벌작전은 제11사단이 전담하게 되었다.

제11사단은 1950년 9월 25일부로 편성을 완료하고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07호에 따라 1950년 10월 10일 대구를 출발하여 14일 남원에 도착하였다. 당시 제11사단은 제9연대, 제13연대, 제20연대를 비롯해 제3·5·6·7·8 경비대대 등 5개의 경비대대를 배속받았다. 제11사단 예하인 제9연대는 1950년 9월 30일 대구에서 총병력 2,979명으로 창설되었으며, 제13연대는 9월 26일 진해에서 3,000명의 병력으로 창설되었다. 그리고 제20연대는 9월 25일 삼랑진에서 육군 제6훈련소를 개편하여 창설된 후 10월 1일에 제주도 제5훈련소로부터 장교 87명과 사병 1,500명을 보충 받아 연대 편성을

4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989, p. 143.

48)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 1988, p. 154.

완료했다.⁴⁹⁾

이렇게 편성된 제11사단 예하 3개 연대는 게릴라 토벌작전 수행임무를 부여받고 제9연대가 전남에, 제13연대가 전북에, 제20연대가 지리산지구에 각각 분산 배치되었으며, 배속된 5개 경비대대와 경찰 그리고 청년방위대는 주보급로 및 주요시설 경계임무를 수행했다.⁵⁰⁾

당시 제11사단의 호남지구 게릴라 토벌작전은 작전상 크게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1기 작전은 1950년 10월 1일~10월 25일까지로 사단의 주력이 호남지구에 집결한 후 각 지구 행정기관의 복구 및 적정 수집을 하는 한편, 사병들에 대한 전투 훈련 및 소규모 토벌작전을 병행한 시기이다. 특히 이 기간 중에 퇴로를 차단 당한 게릴라들은 험준한 산악지대에 근거지를 두고 아군의 보급로를 파괴하고 통신망을 두절시키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제2기 작전은 1950년 10월 26일~12월 31일까지로 이 작전기간은 소위 '堅壁清野'작전 개념에 입각해 산간벽지에 있는 민간인들을 소개하고 게릴라의 보급로를 차단해 적을 기아 상태에 몰아넣는 한편, 아군의 통신보급로 기동이 유리한 거점을 확보하여 게릴라 소탕에 주력한 시기였다. 제3기 작전은 1951년 1월 1일~4월 초까지로 이 작전기간에 게릴라들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아군이 전략상 후퇴를 하게 되자, 이를 계기로 지역별 연대를 이루며 약탈·납치·방화·기습 등의 활동을 적극 감행하였다. 이에 경찰 및 청년방위대는 주보급로 및 통신망 확보에 대한 책임을 맡고 제11사단은 주로 적 근거지 파괴에 전 병력을 집중하였던 시기이다. 특히, 제11사단은 2월부터 3월까지를 최종 게릴라 토벌기로 정하고 관내 험준한 산악지대에 준동하는 게릴라와 각 연대 전투지경 간에 유동하는 게릴라를 신속히 소탕하고자 수차례에 걸친 사단작전으로 적 근거지를 완전히 파괴하고 게릴라들이 보유하고 있던 보급 물자를 게릴라들과 완전히 분리시키는 동시에 적의 핵심인물들을 대부분 포착하여 재집결을 불가능하게 하였다.⁵¹⁾

4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59』, 1987, p. 336, 573, 922.

50)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 1988, p. 169.

각 작전기간별 주요 전투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기 작전(1950년 10월 1일~10월 25일)

이 작전기간에는 제13연대와 제20연대가 주축이 되어 호남지구 게릴라 토벌작전을 주도하였다.⁵²⁾ 제13연대는 1950년 10월 6일 사단 작전명령 제2호에 의거 10월 7일 진주에서 함양으로 이동해 18일까지 함양군 일대에서 토벌작전을 전개한 후 18일에 남원으로 이동했다.⁵³⁾ 연대본부를 남원에 두고 연대 전술지휘소를 진주에 설치한 제13연대의 주된 임무는 경찰과 협조해 전북도내의 치안을 유지하고 행정기능의 회복을 돕는 것과 게릴라 토벌작전을 병행하는 것이었다. 전주·남원 등과 같이 비교적 큰 도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좌익세력의 영향력이 컸으며, 경찰력 또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 치안과 행정 기능은 거의 마비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제13연대의 제1기 작전은 수복지구의 확대와 주요 시설물 보호에 주력하고, 전면적인 게릴라 토벌작전보다는 소규모 작전을 통해 게릴라의 활동을 산악지대에 국한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 예로 10월 21일 제1대대의 백운산전투와 10월 22일~23일 제3대대의 운암발전소 방어전투를 들 수 있다.⁵⁴⁾

51) 「토벌작전 결과 보고의 건」, 1951. 4. 1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59』, pp. 171~174.

52) 제9연대는 11월 4일 제1대대가 김천에서 남원으로 이동하고, 11월 18일 제2, 3대대가 진주로 이동하기 전까지 김천, 문경, 상주 등 경북 일대에서 토벌작전을 전개했다.

53) 당시 제13연대는 함양군 마천면, 백천면, 휴천면 부근의 산악지대에 약 4,000명으로 추산되는 게릴라를 상대로 토벌작전을 벌인 후 10월 18일 사단 작명 제7호에 의거해 연대본부를 함양에서 남원으로 이동하였다(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59』, pp. 574~575).

54) 제1대대는 백운산전투에서 83명의 게릴라를 사살하고, 46명을 생포하였으며, 박격포를 비롯한 각종 무기 36정, 자동차 1대, 각종 실탄 272발을 노획했다. 그리고 제3대대는 10월 22일~23일 이틀간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운암발전소에 침입한 게릴라 300명(무장 200, 비무장 100)과 교전하여 22명의 게릴라를 사살하고, 총기류 5정, 수류탄 6발 등을 노획했다(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59』, pp. 574~577).

한편, 제20연대는 10월 4일 삼랑진에서 진주를 경유해 광주로 이동하여 광주여자중학교에 연대 전술지휘소를 설치하고 전남지방의 치안유지와 게릴라 토벌작전을 수행했다. 담양군, 영암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등을 작전지역으로 한 제20연대는 제1대대가 담양군 부근에 거점을 두고 남원-광주 간의 도로를 차단하여 보급로를 위협하는 담양지구 게릴라들을 소탕하였으며, 제2대대가 함평-장성 간 일대에 병력을 배치한 후, 장성군 일대의 게릴라 소탕작전에 임했다. 그리고 제3대대가 영암군 일대에서 게릴라 소탕작전을 전개하여 이 일대에 거점을 두고 있던 게릴라들을 영암북쪽에 위치한 월출산 방향으로 격퇴하였다.⁵⁵⁾

제11사단이 창설된 이후 약 1개월 동안 이루어진 제1기 작전의 특징은 본격적인 게릴라 토벌작전에 앞서 준비단계로써 사단 주력의 호남지구 집결,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기능 복구, 적정수집 등이 이루어지고, 주요 보급로 확보를 위한 소규모 게릴라 토벌작전이 수행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작전성과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본격적인 토벌작전을 위해 주요 거점을 확보해 나갔다는 점에서 작전상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제2기 작전(1950년 10월 26일~12월 31일)

제2기는 ‘전벽청야’라는 작전개념하에 제11사단이 본격적으로 호남지구

55) 전라남도 담양군 일대의 게릴라 토벌작전을 수행한 제1대대의 주요작전으로는 10월 15일과 10월 31일에 있었던 토벌작전을 들 수 있다. 이들 작전에서 제1대대는 10월 15일 작전에서 게릴라 사살 63명, 생포 8명과 직사포 1문, 각종 소총 10정의 전과를 올렸으며, 10월 31일에는 게릴라 사살 90여 명, 생포 16명, 각종 총기류 11정 등의 전과를 올렸다. 그리고 장성군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한 제2대대는 10월 20일 게릴라와 교전해 사살 10여 명, 생포 25명, 각종 소총 7정, 수류탄 3발, 트럭 2대 등의 전과를 올렸으며, 영암군 일대에서 작전중이던 제3대대는 10월 30일 전투에서 34명의 게릴라를 사살하고, 차량 1대와 소총 6정을 노획하였다(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59』, pp. 926~939).

게릴라 토벌작전을 수행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고대 춘추전국시대로부터 내려온 전통적 작전개념인 ‘견벽청야작전’은 중국 중앙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개석과 함께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사단장 최덕신⁵⁶⁾ 준장이 직접 제기한 작전개념이었다. 이 작전개념의 성립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후에 최덕신의 다음과 같은 회고담에 잘 나타나 있다.

“견벽청야작전은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국부군의 지장 백중희 장군이 항일전에 적용해 많은 성과를 거둔 작전개념이었다. 내용은 꼭 지켜야 할 전략거점은 벽을 쌓듯이 확보하는 주의로 나가고, 부득이 적에 내놓게 되는 지역은 인력과 물자를 이동하고 건물을 파괴하는 등 깨끗이 비워버려 적으로 하여금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11사단의 작전지역은 대부분 산세가 험해서 국군이 산속에 숨은 공비를 따라다니며 토벌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군청 소재지 등 경제, 통신, 문화의 집중지를 확보하고 그 사이의 군 보급로를 확보하는 데 우선 역점을 두었다. 이것이 견벽에 해당하는 작전이다. 다음으로 공비가 식량을 약탈하거나 인력과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산간벽촌을 철수시켰다. 산재해 있는 벽촌을 사단병력을 소수로 쪼개서 일일이 보호할 수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청야’에 해당하는 작전이다”⁵⁷⁾

이것에 의하면, 견벽청야작전의 골자는 도처에 산재해 있는 벽촌을 일일이 다 보호할 수 없어 일정한 거점만을 확보하여 방비하고 나머지 지역은

56) 최덕신은 평북 의주 출신으로 1936년 중국 중앙군관학교를 졸업한 광복군 출신으로 중국 관내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해방 후 육군사관학교와 미보병학교를 졸업했다. 한국전쟁 당시 제8사단과 제11사단장을 역임했으며, 1953년 휴전협상 때 군사정전위원회 한국측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그후 육군사관학교장, 주베트남대사, 외무부장관, 주 서독대사, 제7대 천도교 교령을 지냈다. 1977년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1986년 월북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최고인민회 대의원, 청교도 청우당 위원장, 조선종교인협의회장을 역임했다. 1989년 11월 평양에서 사망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인물대사전』, 중앙일보사, 1999, p. 2246).

57) 중앙일보사 편, 『민족의 증언』 3, 을유문화사, 1975, p. 410.

인원과 물자를 비워버려 적이 받을 붙일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었다.⁵⁸⁾

이러한 작전개념에 따라 제11사단 소속의 각 연대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게릴라 토벌작전에 임했다. 제9연대가 진주를 중심으로 경상남도 일대와 호남 일부 지역의 작전을 담당했으며, 제13연대가 전주를 중심으로 전라북도 지역의 작전을, 제20연대가 광주를 중심으로 전라남도 지역의 작전을 담당했다.

제9연대의 경우, 호남지구 게릴라 토벌작전은 제1대대가 거의 전담했다.⁵⁹⁾ 11월 4일 남원으로 이동한 제1대대는 11월 20일 남원군 대전리 일대에서 패잔병이 주축이 된 게릴라 1개 대대와 교전해 사상 532명, 생포 98명, 각종 소총 99정, 기관총 2정, 직사포 1문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⁶⁰⁾ 그 후 11월 23일~24일 이틀간 이루어진 사단작전에 참여해 패관산·덕유산에서 전투를 치룬 후,⁶¹⁾ 전라남도 구례군으로 이동해 게릴라 토벌작전에 임했다. 특히, 제1대대는 지리산 남쪽 자락인 산동면과 산서면을 집중적인 게릴라 토벌 대상지역으로 정하고 작전을 수행했다. 그 결과 제1대대는 12월 5일 산동면에서 20명의 게릴라를 사살하고, 16명을 생포하였으며, 7일에는 산동면 전투에서 사상 120명, 포로 16명, 산서면 전투에서 사상 72명, 포로 10명 등의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이러한 국군의 게릴라 토벌 전과와는 달리 게릴라들의 기습으로

58) 거창사건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된 제11사단 제9연대 제3대대장 한동석 소령은 '건벽청야 작전'과 관련해 연대작명으로 ① 작전지역내에 있는 사람은 전원 총살하라, ② 공비의 근거지가 되는 가옥은 전부 소각하라, ③ 식량은 안전지역으로 운반하여 확보하라는 세 가지 사항을 하달 받았다고 주장하나(중앙일보사 편, 위의 책, pp. 415~416), 이를 뒤받침 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59) 제2대대와 제3대대는 지리산의 동사면 지역, 즉 경상남도 지역의 게릴라 토벌작전을 주로 하였다.

6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59』, pp. 342~344.

61) 이틀 동안의 전투에서 제11사단은 총 881명의 게릴라를 사살하고, 145명을 생포하였다(KMAG, Periodic Intelligence Report, No. 118, 1950. 11. 24). 이 수치는 제11사단이 11월 한달 동안에 기록한 게릴라 사살 수(사살 1,540명, 생포 715명)의 절반에 해당한다(KMAG, Periodic Intelligence Report, No. 127, 1950. 12. 3).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 예를 들어 11월 29일에 발생한 미고문관을 비롯한 제9연대 장병 31명의 피습사건은 사단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일련의 사건들과 더불어 게릴라에 대한 장병들의 적개심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⁶²⁾

한편, 제13연대는 각 대대 전술지휘소를 충청남도 금산(제1대대), 전라북도 진안(제2대대), 충청북도 청주(제3대대)에 각각 설치하고 대둔산에 근거지를 두고 충남 금산의 남이면과 전북 진안의 명덕봉을 연하는 선 일대에서 활동하는 게릴라들을 소탕하였다. 12월 20일까지 진행된 이 작전에서 제13연대는 총 170명의 게릴라를 사살하고 86명을 생포하였다.⁶³⁾ 대둔산 부근의 근거지 공략이 성공적으로 일단락 되자 제13연대는 12월 21일에 연대 전술지휘소를 전주에서 진안으로 이동하고, 제1·2·3대대가 장수군 장계면 일대에서 24일까지 덕유산부근의 게릴라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그 후 제1대대는 장계에서, 제2대대는 영동에서, 제3대대는 무주에서 각각 게릴라 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일부 병력이 부안군 산내면 변산으로 이동해 변산일대의 잔여 게릴라들을 완전히 소탕하였다.⁶⁴⁾

이 기간 동안 제20연대는 담양군 금성면, 순창군 순창읍·동계면·구림면, 화순군 동면·북면, 함평군 해보면 등지에서 게릴라 토벌작전을 전개했다. 연대 작전보고서에 의하면, 이들 전투에서 제20연대는 게릴라 667명을 사살하고 34명을 생포했다.⁶⁵⁾

요컨대 제2기 작전 기간의 특징은 산간벽지에 있는 민간인들을 소개하고

62) 사건은 29일 13:30에 미고문관 2명을 포함해 37명이 사단본부로 출장을 가던중 게릴라로부터 습격을 당해 미고문관 1명을 비롯해 31명이 전사하였다. 사건의 경위는 11월 29일 오전 9시경 제9연대를 출발하여 수색대가 승차한 GMC 1대가 선두로 다음에 고문관 짝차 다음 헌병대장 짝차의 순서로 행군중 연치에서 수색대의 수색 불충분으로 인하여 불의의 습격을 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59』, p. 346).

6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59』, pp. 604~612.

6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59』, pp. 612~623.

65) 각 전투에 대한 작전 지도 및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59』, pp. 926~928, 936~946 참조.

게릴라의 보급로를 차단해 적을 기아 상태에 몰아넣는다는 ‘견벽청야’ 작전 개념에 입각해 대규모의 소탕작전이 전개되어 상당수의 게릴라들을 사살하거나 생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소 무리한 작전이 전개되어 함평사건⁶⁶⁾과 같이 민간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3) 제3기 작전(1951년 1월 1일~4월 6일)

중공군의 참전으로 지리산을 중심으로 백운산, 덕유산, 회문산, 불갑산, 백아산, 화학산 일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거점을 둔 게릴라들은 한국전쟁 발발 당시와 같은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믿고 1951년 1월부터 수백명 단위로 보급 열차를 파괴하거나 군경을 습격하는 등 강력한 게릴라전을 벌였다.⁶⁷⁾ 일례로 1월 16일 약 800명의 게릴라들이 광양읍을 공격하여 경찰관 4명과 민간인 11명을 사살했으며, 같은 날 군산에서는 미 공병대원 4명이 게릴라로부터 습격을 받아 사망하기도 했다.⁶⁸⁾ 또한 22일에는 약 300명의 게릴라들이 전라북도 정읍의 운암발전소를 공격해 발전소 시설물을 파괴했다.⁶⁹⁾

이 같은 게릴라들의 강력한 저항에 맞서 제11사단은 게릴라들의 근거지 파괴와 지도급 인물 체포를 통해 게릴라의 재집결을 봉쇄한다는 목표를 두

66) 1950년 12월 6일부터 1951년 1월 14일까지 함평군의 월야·해보·나산 등 3개 면에서 게릴라 토벌과정 중 민간인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었다. 1960년 국회특별조사위원회의 사건조사 결과 총 524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양민학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국회양민학살진상조사특별위원회조사보고서』, 1960).

67) K MAG, Periodic Intelligence Report, No. 159, 1951. 1. 7.

68) K MAG, Periodic Intelligence Report, No. 168, 1951. 1. 16.

69) K MAG, Periodic Intelligence Report, No. 176, 1951. 1. 24. 이밖에 27일에는 회문산에 1590명(무장 740명, 비무장 850명) 등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각 지역에 1,000명 이상 단위의 게릴라들이 집결하고 있다는 보고가 수시로 접수되고 있었다(K MAG, Periodic Intelligence Report, No. 181, 1951. 1. 29).

고 작전을 전개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이전과 달리 유엔 공군의 지원을 받아 육군과 공군의 합동작전이 전개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주한미군사고문단 정보보고서에 의하면, 1월 20일 유엔 공군이 게릴라들의 주요 활동 근거지인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일대에 항공 폭격을 가하여 511명의 게릴라를 사살하고, 11사단의 후속작전으로 123명의 게릴라를 추가로 사살하였다.⁷⁰⁾ 또한 1월 31일에는 회문산 일대에 대한 합동작전으로 총 429명의 게릴라를 사살했다고 기록하고 있다.⁷¹⁾

당시 제11사단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제9연대가 동남쪽을, 제20연대가 서남쪽을, 그리고 제13연대가 북쪽을 담당하면서 토벌작전을 전개했다. 제9연대의 경우, 2월 19일까지 경남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한 후 3월 중순경 화순군 백아산 지역과 광양 일대로 이동해 호남지구 게릴라 토벌작전에 임했다. 이 과정에서 제9연대는 3월 17일 화학산 일대에서 게릴라들과 교전해 남해여단장, 부여단장, 참모장, 중앙감찰부장 등 거물급 인사를 비롯해 86명의 게릴라를 사살하였으며, 3월 22일에는 순천을 습격한 게릴라들과 교전을 벌여 전 남로당 문화부장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

한편 담양·순창·화순·장성·나주군 일대에서 게릴라 소탕작전을 전개하던 제20연대는 1,500여 명의 게릴라가 회문산을 거점으로 활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월 9일 제1·2대대를 투입해 본격적인 소탕작전을 전개했다.⁷²⁾ 또한 2월 20일에는 불갑산에서 활동하던 350여 명의 게릴라를 섬멸

70) 당시 폭격으로 게릴라의 근거지인 5개 마을이 100%, 5개 마을이 50%, 1개 마을이 75% 파괴되었으며, 1개 게릴라 야전병원이 파괴되었다(KMAG, Periodic Intelligence Report, No. 177, 1951. 1. 25).

71) 1월 31일 오후 2시 30분에 감행된 항공 폭격으로 게릴라 319명이 사살되었으며, 항공 폭격 이후 감행된 지상작전으로 110명의 게릴라를 추가로 사살했다(KMAG, Periodic Intelligence Report, No. 186, 1951. 2. 3).

72) 국군 제11사단, 『화랑약사』, 1975, p. 86; 2월 8일~15일까지 제20연대는 약 500~600명의 게릴라와 교전해 557명을 사살하고, 2명을 생포했다고 보고했다(KMAG, Periodic Intelligence Report, No. 194, 1951. 2. 11). 그러나 이러한 전과보고는 다소 과장된 감이 있다.

하였으며, 3월 3일에는 불갑산에서 대청산으로 이동한 게릴라들을 공격해 격퇴하고 회문산작전을 종결지었다.

제9연대와 제20연대가 게릴라 토벌작전을 벌이는 동안 제13연대는 정읍군 칠보와 운암발전소, 옥정리 수문을 경계하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사단의 대규모 소탕작전으로 2월 하순부터 게릴라들의 활동이 현저하게 감소하자, 대전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제3기 작전기간의 특징은 게릴라 지도급 인물의 검거·사살과 근거지의 완전한 파괴를 통해 게릴라의 재집결을 봉쇄한다는 목표하에 공군까지 동원된 대규모의 토벌작전이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1사단이 이 기간 동안에 거둔 전과를 보면 작전의 규모나 강도면에서 얼마나 크고 강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950년 10월 1일부터 1951년 4월 6일까지 3단계로 진행된 제11사단의 게릴라 토벌작전은 게릴라와 주민들을 분리시켜 게릴라의 조직적

<표 2> 제3기 작전간 게릴라 사살 및 생포 수

기 간	전 과	
	사 살	생 포
1. 1~9	199	59
1. 10~19	450	30
1. 20~1. 31	1,787	33
2. 1~10	686	81
2. 10~19	507	28
2. 20~29	939	71
3. 1~9	966	37
3. 10~19	974	202
3. 20~29	394	62
4. 1~6	19	0
총	6,921	603

출처 : K MAG, Periodic Intelligence Report, No. 158~245.

인 활동을 분쇄함으로써 후방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제11사단의 토벌작전 성공이 곧 호남지역에서의 완전한 게릴라 축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⁷³⁾ 초기에 게릴라의 기세를 꺾었다는 점과 작전상의 성과와 오류가 이후 전개되는 게릴라 토벌작전의 중요한 교훈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4. 결 론

전쟁 이전부터 호남지역은 여순10·19사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익 세력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지역이었다. 비록 1950년 3월을 기점으로 정부의 대대적인 좌익 척결 방침에 따라 그 세력이 상당히 축소되었지만 지리산을 중심으로 약 200여 명의 게릴라들이 활동하면서 북한의 남침에 호응하였다. 이들 토착 좌익세력은 북한이 호남지역을 점령하자 재부상하여 각종 좌익단체의 핵심세력으로 등장하였으며, 북한군 퇴각시에는 북한군 패잔병과 더불어 게릴라부대의 중심 세력으로 전환하였다.

호남지구에는 지리산, 불갑산, 장흥 유치일대, 백아산 등의 산악지대가 게릴라들의 아지트가 되었으며, 이들 게릴라들은 호남지구 각처에서 국군의 보급로차단·식량약탈·지서습격·차량기습·통신망 절단 및 살인, 방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국군은 9월 25일 남한지역내의 게릴라 토벌을 목적으로 제11사단을 창설했다. 제11사단의 게릴라 토벌작전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되는데, 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기 작전은 1950년 10월 1일~10월 25일까

73) 1951년 3월 25일 현재 호남지역에는 약 4,500명의 무장세력과 약 5,500명의 비무장 세력 등 총 10,000여 명의 게릴라가 활동하고 있었다(KMAG, Periodic Intelligence Report, No. 236, 1951. 3. 25).

지로 작전의 특징은 본격적인 게릴라 토벌작전에 앞서 준비단계로써 사단 주력의 호남지구 집결,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기능 복구, 적정수집 등이 이루어지고, 주요 보급로 확보를 위한 소규모 게릴라 토벌작전이 수행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작전 성과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본격적인 토벌작전을 위해 주요 거점을 확보해 나갔다는 점에서 작전상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제2기 작전은 1950년 10월 26일~12월 31일까지로 작전의 특징은 산간벽지에 있는 민간인들을 소개하고 게릴라의 보급로를 차단해 적을 기아 상태에 몰아넣는다는 ‘견벽청야’ 작전개념에 입각해 대규모의 소탕작전이 전개되어 상당수의 게릴라들을 사살하거나 생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소 무리한 작전이 전개되어 함평사건과 같이 민간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3기 작전은 1951년 1월 1일~4월 6일까지로 작전의 특징은 게릴라 지도급 인물의 검거·사살과 근거지의 완전한 파괴를 통해 게릴라의 재집결을 봉쇄한다는 목표하에 공군까지 동원된 대규모의 토벌작전이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1950년 10월 1일부터 1951년 4월 6일까지 3단계로 진행된 제11사단의 게릴라 토벌작전은 게릴라와 주민들을 분리시켜 게릴라의 조직적인 활동을 분쇄함으로써 후방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제11사단의 토벌작전 성공이 곧 호남지역에서의 완전한 게릴라 축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초기에 게릴라의 기세를 꺾었다는 점과 작전상의 성과와 오류가 이후 전개되는 게릴라 토벌작전의 중요한 교훈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원고투고일 : 2003. 7. 10, 심사완료일 : 2003. 8. 4)

주제어 : 한국전쟁, 게릴라, 토벌작전, 작전개념, 제11사단

<ABSTRACT>

An Analysis of the Punitive Operation against Guerrillas in Honam District(June, 1950 - April, 1951)

Park, Dong-Chan

This study is the analysis of condition of guerrillas' activities in Honam district and the punitive operation on the guerrillas by the 11th Division of Korean Army from the beginning of Korean War to April, 1951.

Even before the Korean War, leftist influence was prevalent in Honam district. Though the government tried to eradicate leftist organizations and succeeded in reducing their influence before the beginning of the Korean War, about 200 guerrillas got into activities around Jiri Mountain in concert with North Korean invasion. These native leftists reemerged as North Korean Army seized Honam district, and led various leftist organizations. When North Korean Army retreated, they formed a central force of guerrilla units along with North Korean stragglers.

These guerrillas made hideouts in mountain areas such as Jiri Mountain, Bulgap Mountain, Hwahak Mountain, Baika Mountain, etc., and cut supply routes of (South) Korean Army, stole food, attacked police substations, cut communication lines, committed murders, and set fires.

So Korean Army established the 11th Division on September 25 to eradicate guerrillas. The punitive operation of the 11th Division can be divided into 3 stages. The first period of operation from October 1 to October 25, 1950 was a preparatory stage for a full-scale operation, and was to secure important strongholds through small-scale operations. The

second period of operation from October 26 to December 31, 1950 was a stage to carry out a big-scale operation to evict civilians, cut supply routes of guerrillas, and starve them into surrender. The third period of operation was that of big-scale operation using air force to block the reassemblage of guerrillas through arrests of leading figures of guerrillas and destruction of their hideouts.

Such a 3-stage punitive operation of the 11th Division of Korean Army discouraged the spirit of guerrillas in an early stage, and its strategic accomplishment and errors became an important lesson for other punitive operations of the future.

Key Words: Korean War, Guerrilla, Punitive operation, Operational concept, 11th Division

K C I